

이 주의 투자 포인트 (8월 25일 주)

이번 주는 한미 정상회담, 미국 PCE(물가지표) 발표,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 주요한 정치/경제/기업 실적 이벤트가 혼재하면서 **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**. 시장의 초점은 9월 중순 FOMC의 금리 인하 여부에 모아져 있으며, 지금은 단일 종목에 대한 공격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높은 기대치와 이보다 더 높은 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겹쳐 있는 성장주에 대한 **차익실현 리스크를 유의할 시점이다**. 포트폴리오 재조정시 1) 방어주 중 실적 성장이 양호한 필수소비재, 2) 미국 정부 주도 반도체 정책 강화 수혜주 노출 전략을 추천한다.

1. 잭슨홀 이후 – 금리 인하 기대감 오르락내리락, PCE와 고용 데이터에 주목

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?

- 파월 의장은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런 변화가 향후 정책 조정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. 동시에 정책 결정은 데이터 의존적이며 성급한 단정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. 발언 직후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지수 반등을 보였지만, 다음 날 일부 연준 위원의 관세발 인플레이션 경고와 파월의 조건부 태도로 인하 기대가 다시 낮아졌다.
- 결국 9월 16~17일 FOMC의 금리 결정은 7월 PCE 물가지수(8월 29일), 7월 고용지표(9월 3일), 8월 실업률(9월 5일)에 달려 있다. 이 세 가지 지표가 사실상 9월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다.

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
- 지금은 기타 연준 위원의 발언이나 기타 지표보다 PCE와 고용보고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. PCE(시장 예상 2.6% YoY)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거나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 인하 기대는 약화되고, 이는 금리 민감 자산 중 특히 고평가된 기술주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.
- 따라서 테크주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주의가 필요하다. 이벤트 전 비중 확대보다는 데이터 발표 이후 빠른 리밸런싱이 중요하다. 방어주 중에서는 실적 성장이 유지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필수소비재 섹터로 로테이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.

2. 엔비디아 실적 – AI 버블 논란 속 시장 주목도 높아

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?

-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는 8월 27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다. 시장 기대치는 사상 최대 매출과 전년 대비 50% 성장으로 매우 높다. 그러나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향후 가이던스다.
- 최근 샘 올트먼(OpenAI CEO)은 AI 밸류에이션 버블을 지적했고,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H2O 칩 사용 제한을 내리며 불확실성이 커졌다. 미국 정부 역시 수출 조건을 달아 중국 매출 압박은 지속되고 있다. 따라서 엔비디아가 Blackwell 칩 수요, Rubin 신제품 출시 계획, 중국 시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관건이다.

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
- 엔비디아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경우 단기 랠리는 가능하지만, 이미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.
- 9월 중순 FOMC 까지 금리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양호한 실적이 나와도 차익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. 따라서 실적 발표 직후 단기 랠리를 추격하기보다는 변동성 확대 구간이 지난 후 포트폴리오 노출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엔비디아 단일 종목 노출에 부담이 있다면 AI 섹터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할 이번 실적을 감안해 AI 테마 ETF를 통한 간접 노출이 더 합리적이다.

3. 인텔 지분 인수 – 미국의 민관 공동 반도체 전략?

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?

-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인텔 지분 약 9.9% 확보에 합의했다. 투자 규모는 약 89억 달러로, CHIPS 법안 및 보조금 성격의 자금을 활용했다. 이번 지분은 비의결권 주식이며 인텔 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, 미국 반도체 공급망 자립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.
- 인텔은 최근 엔비디아와 AMD에 밀리며 경쟁력 논란과 주가 부진에 시달렸지만, 이번 정부 지원이 현실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5% 이상 급등하는 등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.

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
- 지분 투자가 확정된 만큼 중장기적으로 인텔 펀더멘털 개선에 긍정적 요인이다. 다만 인텔 자체의 기술 경쟁력 부족 문제와 구체적 로드맵 부재는 여전히 리스크다.
- 그러나 미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정책 강화와 실질적 자본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미국 내 팹 투자와 반도체 장비업체(ASML, AMAT 등)에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. 따라서 인텔 단일 종목 투자보다는 공급망 전반을 담은 바스켓 투자 전략이 유리하다.

Compliance Note

-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의 애널리스트와 배우자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에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